전남 농어촌·시외 버스 '파산 위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 70%나 감소…종사자 생계도 위협

전남도, 지난해 재정지원금 신속 집행…정부차원 대책 건의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승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남지역 농어촌버스 등 버스업계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종사자들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면서 이날 현재 지난해 대비 버스이용객 감소율이 시외버스는 70%, 시내·농어촌버스는 40~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달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운송수입도 지난해 대비 132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지자체와 버스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도내 50개 업체, 34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버스업계도 운전원 휴직, 장기연차 권장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이 없는 한 생존마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전남도는 버스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해 손실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401억 원 중 136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감축운행 허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파산위기에 봉착한 버스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 특별 재정지원과 버스업계 정책자금 대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운수종사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특별재정지원금 투입 등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기념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맞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민족정기선양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전수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제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 지부장,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유공자 현덕신(전수자 최세운), 유공자 최원순(전수자 최영훈), 유공자 박기평(전수자 박순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유공자 강상국(전수자 강성식), 유공자 박흥선(전수자 박석원), 유공자 성상규(전수자 성유경), 유공자 이천흠(전수자 이홍수)

동구, 푸른길공원 경관개선사업 추진

광주 동구는 주변 생활권과 푸른길공원 간의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해 '푸른길공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푸른길공원은 총 연장 3.75㎞로 동구 주민은 물론 광주 시민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후시설로 주민편의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시설보완이 지속해서 요구돼 왔다.

이에 구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목재 데크 등 노후 시설물 교체와 녹지대 수목, 초화를 보식해 사계절 꽃이 피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초기 만성질환 관리 집에서도 가능해요

광주 서구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무료로 혈압·혈당측정기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혈압·혈당측정기 대여사업은 초기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코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2019년, 2020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으로 신규 진단받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서구 주민이다.

남구 양림동 새명소 양림펭귄 스튜디오 오픈

광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에 시민들이 방송 제작과정에 참여하면서 종종 연예인도 만날 수 있는 오픈형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남구는 10일 "양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예특화거리를 포함한 근대역사문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 광주MBC와 손잡고 '양림펭귄 스튜디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문을 여는 양림펭귄 스튜디오는 펭귄마을 입구 평화의 소녀상 뒤편에 위치해 있다.

스튜디오는 84㎡ 규모로 지어졌으며, 건물 내부에는 스튜디오를 비롯해 방송 제작을 컨트롤하는 조종실, 방청석 등을 갖추고 있다.

북구, 우호협력도시 중국 시산구서 방역물품 받아

광주 북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인연을 맺어 온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우시시 시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물품지원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니 시점인 지난 2월 북구가 마스크 2400매와 서한문을 시산구로 먼저 보낸 데에 대한 답례인 것으로 보인다.

지원물품은 수술·덴탈용 마스크 3만 매와 의료용 방호복 600벌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10일 북구청에 도착했다.

광산구, 청년 활력 지원사업 참여 청년·기업 공모

광주 광산구가 '청년 삶 비즈니스모델 일경험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취업유지수당 지원사업' 참여 청년·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이번 광산구의 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미취업 청년을 돕는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고용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연결해주는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청년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청년을 매칭해주고, 청년 1인당 6개월 동안 월 108만원 이내로 지원해준다.

임형택 기자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 신청자 모집

오늘부터 22일까지…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

광주시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각 560명씩 총 1120명을 모집한다. 청년드림수당은 5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수당 형태로 지원하며, 구직활동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청년이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현재 시 청년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2018년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및 중도 포기자, 국가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https://gj3dreams.modoo.at)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영범 기자

"농기계, 토요일에도 빌려 쓰세요"

광주농기센터, 6월까지 영농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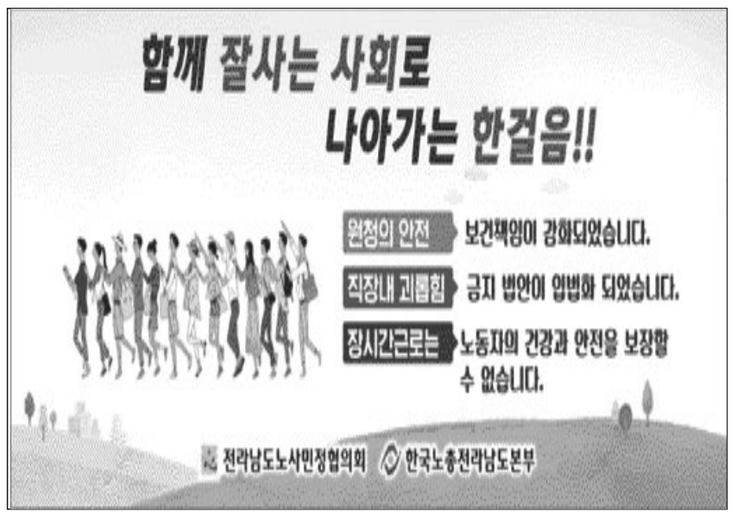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8일부터 6월2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요일 운영은 영농철을 맞아 급증하는 농기계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평일 이용이 불가능한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전날 오후 5시부터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기종별로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전화로 임대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감소와 일손부족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4~7월)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임대 첫날은 전액 감면, 2일 이상 임대할 경우엔 이튿날부터 임대료가 정상 부과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8종 444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농가 경영비 절감, 일손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농업인분들이 제때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기계 이용 시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야간운행 및 음주 작업은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